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29호 2004년 7월 30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에 금융지원

- 전문기업 · 중소기업에 최대 10억까지 보증지원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IT전문기업들에게도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자금지원 규모는 정보화혁신전문기업의 경우 지원 중소기업들과의 협약금액의 50%이내에서 10억원까지이며, 정보화를 구축하는 중소기업은 협약금액의 100% 이내에서 3억원까지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문기업 및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전문기업 확인서(전문기업) 및 사업성공 확인서(중소기업) 발급 → 기업은행 또는 우리은행의 신용보증 추천 → 기술신보의 보증서 발급 → 추천받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번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화혁신전문기업 사업은 중기청이 지정한

IT전문기업이 자체인력 및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정보화 계획 수립 및 구축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정보화에 성공할 경우에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정보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기술지원국  
기업정보화과  
(042-481-4400)

## 지방중소기업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31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에 31억을 투입키로 하고 전라남도 담양농공단지 등 12개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전국의 12개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사업’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입주 중소기업들이 빠른 회선의 통신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시설공사 및 소요장비를 지원한다.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사업’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협동화사업단지, 아파트형공장 등 지방의 중소기업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초고속통신망, 사내 LAN 등 정보화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도 경남 진해마천지방산업단지 등 9개 지역을 지원한 바 있다.

▶ 기술지원국  
기업정보화과  
(042-481-4403)

# 1007개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지원

## - 9월말까지 제4차 지원사업 신청접수 -

중소기업청은 2004년도 제3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에 1007개 업체를 선정해 60억원을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격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해 인증획득 업무를 대행케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고 50%까지 1000만원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 상반기 2361개 업체에 14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지원하며 이번 제3차 사업에는 1539개 업체가 신청하여 그 중 1007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업체의 인증수요를 보면 총 66개 인증분야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으며, 특히 CE, ISO14000, QS9000 인증이 전체의 61.7%인 791개 규격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업체들은 다음달 12일까지 사업 관리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획득을 완료하면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9월 말까지 제4차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아 10월 10일까지 평가를 거쳐 1000여개 업체를 선정,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술지원국  
시험평가과  
(042-481-4457)

##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과목 확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과목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7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사 1차시험과목에 기업진단론과 조사방법론이 추가됐으며, 2차시험 과목에는 분야별로 2과목씩 추가됐다.

또한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질서를 위반한 경우 물품의 제조, 수리, 전기공사 등은 계약금액 3억원 이상, 일반 건설공사는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이면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단체수의계약 차등 물량 배정규정을 악용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기관이 차등 물량배정 요구시 물품의 품질 등 납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문서로 조합에 통보토록 하고 특정 조합회원의 물품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엄격한 자격시험 관리와 시장 경쟁원리에 의해 경영·기술지도사를 육성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구매시 품질, 사후관리, 납품기간 등 관련사항을 준수토록 관리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정책국  
지식서비스기업과  
(02-509-7061)

# 중소기업 색다른 경험, 취업으로 이어져요

## - 비즈쿨 고교생 우수중소기업 탐방 성과 커 -

중소기업청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80개 실업계 학교(비즈쿨 시험학교) 학생 28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내 우수 중소기업 탐방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등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 속에 미니 식물을 키워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주)인비트로플랜트를 방문한 수도권 15개 시범학교 학생들은 생명공학 분야의 틈새시장을 개척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함께 참석한 관악정보고 민경숙 교사는 “학생들이 중소기업하면 어렵고 힘든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 탐방을 통해 중소기업 중에는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직업선택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중소기업 탐방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랐다.

또한 신일정보고(경기 일산 소재)의 비즈쿨 동아리인 체크메이트(보드게임) 학생들은 독일에 보드게임을 수출하고 있는 (주)다고이를 방문하여 국내 보드게임개발 현황을 견학하였고, 이를 계기로 (주)다고이(대표 한광희)는 학생들의 게임 개발의지를 높이 사 체크메이트 학생들의 게임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력과 상관없이 졸업 후 채용키로 했다.

남양주공고(경기 남양 소재) 학생들은 청운식품을 방문해 생산라인 및 근무여건 등을 견학하고, 탐방이후 회사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우대해 주기로

했고, 학교에서는 기업체에 학교시설을 빌려주기로 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중기청은 처음으로 실시한 실업계 고교생의 중소기업 탐방활동이 중소기업 취업연계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비즈쿨 사업을 확대하여 고교졸업 후 중소·벤처기업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02-509-7033)

## 제4회 소자본 신사업 창업박람회 개최

중소기업청은 ‘제4회 소자본 신사업 창업박람회’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신업종, 신제품, 신업태 등을 발굴하고 종합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창업박람회는 인터넷·정보통신관, 소호관, 여성기업관, 프랜차이즈관, 해외신업종관 등에 85개 업체가 참가해 예비창업자들과 업종전환 희망자들에게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인다.

또한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 등에게 창업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창업 트렌드 및 유망아이템 소개, 업종별 창업전략, 프랜차이즈 창업전략 및 성공사례 등을

주제로 한 창업스쿨을 개최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지원기관과 함께 창업자금지원 및 창업컨설팅 등에 대한 상담도 실시한다.

이외에 개막식 당일에는 사업성과 시장성이 우수한 소자본·재택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소호비즈니스모델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열린다.

중기청은 지방의 소상공인들에게도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창업벤처국  
소기업창업과  
(042-481-4408)

## 수출 중소기업인상 신청 접수

중소기업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12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2004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인상'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02년부터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수출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인상'의 신청대상은 상반기 중 지속적인 수출 신장세를 보이면서 수출액 또는 수출증가율이 높거나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변신한 사례 등 3개 분야이며,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직수출 실적, 수출비중, 신시장 개척, 수출의지 및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분야별 각각 2개씩 총 6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및 수출금융 지원 심사시 가점 부여,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대, 아리랑TV에 제품 홍보, 무역서비스 및 상품전시회에 무료 참가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http://www.exportcenter.go.kr))를 참고하면 된다.

▶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  
(042-481-4465)